

# 우리나라 고학력화 현상의 원인과 전망

강 희 돈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원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고학력화 현상의 원인을 봉건주의 시대 이후 일제기까지 형성된 교육요구, 그리고 교육자격의 예비직업자격 기능, 사회이동 통로로서의 학교교육 및 노동시장 분절 그리고 중간층의 증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고학력 선호경향이 쉽사리 사라졌을 전망은 없어 보인다. 우리 사회의 경우, 우리의 가치관에서부터 사회제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들이 고학력에 대한 열망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고학력화 현상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능력·개성·특성이 존중되어 '삶의 질'을 만족스럽게 높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개혁과 함께, 나의 자식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우리들의 자식을 위한 교육'이라는 의식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1. 머리말

현 대 산업사회는 부모의 지위가 자식에게 직접 전수되는 귀속사회가 아니라 자신의 순수한 노력이나 능력 또는 재능에 의해서 자신의 지위가 결정되는 성취사회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경우 해방후 교육기회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학교교육이 사회이동 통로로 작용함으로써 많은 이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해방후 우리의 학교교육은 질적·양적으로 끊임없이 팽창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 교육열은 식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학자격 획득을 위한 경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교육은 황폐화되어 가고,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교육이 사회이동 통로로서 관심의 대상이 된 데에는 학교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곧 능력의 신장이라는 믿음에 근거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러한 믿음과 모순이 되는 현상을 종종 목격한다. 고졸 여직원 채용시 학교에서 노력한 결과보다는 외모나 키 또는 체중과 같은 신체적 조건을 채용기준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sup>1)</sup> 성별에 따라

1) 『동아일보』, 1994. 5. 26, 31면.

노동시장에서 다른 생애과정  
을 겪기도 하고,<sup>2)</sup> 세칭 '류  
출신 대졸자에게 취업의 기회  
가 더욱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sup>3)</sup> 이와 같은 현상들은  
교육이수가 곧 능력의 신장이  
라는 신념에 위배되는 현상이  
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볼  
때 우리의 현실은 학교교육이  
곧 능력의 신장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교육자  
격을 획득하기 위해 모든 이  
들이 경쟁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다. 이 결과  
우리의 학교현장은 과행을 면  
치 못하고 급기야는 학생들의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sup>4)</sup> 따  
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의 높  
은 교육열과 고학력화 현상의  
원인을 논의해 봄으로써, 우  
리의 고학력화 현상이 어떠한  
문화적·사회적 특성에 바탕을  
두고 진행되어 왔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높은

교육열과 고학력화 현상에 대  
한 논의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sup>5)</sup> 이 글에서는  
각 관점에서 수행된 선행연구  
결과들을 개관하면서 고학력  
화 현상에 영향을 준 주요인  
들의 관계를 탐색할 것이다.

## 2. 고학력화 현상의 원인

### 1) 문화적 요인

과거제도는 과거시험에 나  
타난 학식의 정도에 따라 사  
람의 능력을 측정하고 그것을  
관료로서의 임용기준으로 한  
다는 점에서 한정적인 업적본  
위의 선발제도로, 능력평가는  
감정 중립적으로 행해졌고,  
수험자격은 보편주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었  
다.<sup>6)</sup> 물론 중국에서 처음 시  
작된 과거제도라는 시험제도  
가 현대와 같은 학교교육 제

도의 발달에 직접 기여한 것  
은 아니나,<sup>7)</sup> 과거시험 합격한  
사람은 엘리트 지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장례를 약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제도는 출세  
를 위한 중요한 통로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시대  
에 도입된 과거제도 역시, 다  
른 성공의 통로가 거의 없었  
던 봉건주의 사회에서 유일한  
출세의 통로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또한 현대와 같은 다  
양한 성공기준이 없었던 시대  
에 관료직에서의 성공은 부,  
권력, 명예 등을 함께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거시험  
합격은 본인뿐 아닌 가계의  
영광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은 가문의 존속  
·발전이라는 효과적 수단이  
되고, 교육에 대한 투자행위  
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수  
용될 수 있었다.<sup>8)</sup> 이와 같은  
과거제도의 영향은 현재 우리  
의 교육열을 이해하는 데

2) 이효수, 『노동시장 구조론』(서울: 법문사, 1989), pp. 260~263.

3) 강양원, "한국인의 교육열",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연세교육연구』, 제7권 1호, pp. 44~48.

4) 『동아일보』, 1994. 12. 24.

5) 강양원, 『전계서』, 1989; 강창동, "한국 학력주의의 사회사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73; 한준상, 『한국대학교육의 회생』(서울: 문음사, 1983); 강순원, "1970년대 상대적 과잉교육에 대한 비판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6) 석태중, 차갑부(역), 『교육과 선발』(서울: 양서원, 1992), p. 37.

7) 『상계서』, p. 38.

8) 강창동, 『전계서』, p. 74.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다른 어떤 교육영역보다도 인문중심의 교육을 선호하게 된다. 이 점은 후술할 일제시대의 교육정책과 맞물려서 해방후 대학교육을 보다 선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즉, 과거시험에서의 중요한 시험과목이 양반집단의 세력형성에 유리한 유교 교양에 초점이 맞추어 짐으로써 하위 학교 수준에서 제공되는 직업교육이나 실업교육을 천시하게 되고 엘리트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대학교육을 선호하게 된다. 이와 같이 대학이 엘리트 지위로 상승할 수 있는 도구로 인식되는 상황에서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이·공과 계열의 교육은 더 이상 농·공·상의 직업교육이 아닌 학문으로 인식되어 성공을 위한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된다.

둘째, 과거시험의 합격이 개인의 영광뿐 아닌 가계의 영광으로 인식되어 가문 보존의 중요한 도구로 인식됨으로써, 대학입학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구조의 변형을 가져오면서, 가족

의 모든 구성원이 입시생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열을 더욱 부추기면서 대학입시 경쟁을 더욱 과열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과거제도의 영향은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일제시대의 교육정책은 복선형 제도로, 이 제도는 식민지 지배민족과 피지배 민족 간에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고 사회이동 통로를 양분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일제 식민지하에 관한 많은 자료를 살펴보면,<sup>9)</sup> 어떠한 경우에도 피지배 민족에게 '충분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었고, 자신들의 여망에 따라 원하는 지위를 획득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것 같다. 이 시기에는 보통 극소수의 친일 세력에게만 특혜를 주었을 뿐이며, 상위 수준의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 중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전문학교 수준의 교육을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저급 수준의 실과 기술교육을 제공하였을 뿐이다. 이 역시 우리의 교육열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즉, 제국대학 등 최고

학벌을 갖춘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높은 지위를 제공함으로써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대학교육에 대한 열망을 보다 강화하게 된다.

셋째, 하위 학교 수준에서 제공하는 직업·기술 교육 등을 천시하게 되고 엘리트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대학교육을 선호하게 된다. 봉건주의 시대의 과거제도에 의한 영향과 일제 식민지 시대의 영향은 해방후, 전통적 신분제도의 완전한 타파와 모든 사람에게 교육 기회가 개방되면서, 대학에 대한 열망을 일시에 폭발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교육기회의 확대와 예비직업자격으로서의 교육자격증

해방후 우리나라의 경우 식민지 수탈로 인해 피해를 국가를 발전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명제이었다. 더욱 일제 식민지하에서 엘리트를 양산할 수 없었던 정부로서는 국가를 경영하고 국가의 경제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엘리트의 양성이 중요한 과제라

9) 강창동, 『전계서』, pp. 86~101의 자료를 참조할 것.

할 수 있다.

또한 20세기 초 교육의 민주화 운동과 국제적인 산업경쟁의 격화로 팽창되기 시작한 학교는 2차대전 이후에 새로운 국제적 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장치로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물론 70년대 이후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교육은 인간성 회복을 위한 교육의 인간화 운동으로 연결되나, 대다수의 국가에서 최대의 관심사는 국가의 경제발전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 상황들은 정부로 하여금 교육 문제, 특히 대학교육을 통한 엘리트 양성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대학 설립기준령, 농지개혁법이나 대학생 징집연기장정령 등의 정책을 통해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게 되었다.

동시에 계속적인 경제발전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변화하게 되었다. 즉, 산업구조가 1차산업 중심에서 2·3차 산업 중심으로 변모하게 되고, 경제구조의

양적 측면 역시 급격히 커지게 되었다.<sup>10)</sup> 또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과학지식이나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새로운 직업의 창출이나 기존 직무수준의 상승으로 직업구조 역시 변모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직종은 단순한 육체노동이 아닌 정신노동을 요구하는 직무로 변환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학교의 수준별 분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고도의 과학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무 수행자에게는 공식적인 자격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교육 자격과 직무수행 자격이 결합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학교에서의 자격증 획득은 특정 직업을 획득하기 위한 예비적 선발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학교의 선발과 분배 기능은 더욱 강화되기 시작한다.

산업사회에서 이와 같은 학교의 선발과 분배 기능은 사회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학교의 위계 수

준은 배우는 지식과 기술의 위계적 구조를 전제로 하고, 학생들은 어떤 수준의 지식을 습득하는가에 따라서, 즉 학력이라는 업적에 의해 평가되어 학교의 위계상에 위치하게 되므로 학교는 그 자체가 업적 본위의 선발 기구가 된다.<sup>11)</sup> 교육자격과 직업자격의 결합이라는 등식에서 볼 때,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자격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자연 고학력에 대한 선호를 부추기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학교 수준별 위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 사회에서 좋다는 직업들은 직업 위계상 상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그 직업을 획득하고자 하는 희망자 수는 상대적으로 많다. 따라서 직업위계에서 상위에 위치하는 직업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은 가열된다. 이러한 경쟁 결과는 같은 수준의 교육기관인 대학간에 차별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대학간 서열화가 이루어지게 된다.<sup>12)</sup> 그 결과 대

10) 강창동, 『전개서』, pp. 134~135의 표를 참조.

11) 석태종, 차갑부(역), 『전개서』, pp. 46~47.

12) 박진규, “고등교육체제 분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53~54.

학의 교육적 업적과 사회인식 가치에 대한 지배적인 인식에 따라 그 이미지가 형성된 세칭 일류 대학 출신자들이 가장 높은 지위의 직업군을 차지하게 된다.<sup>13)</sup> 이와 같은 교육기관 후원형 지위 상승으로 말미암아 대다수의 엘리트 지위는 대부분 소수의 특정 대학 출신들이 차지하게 된다.<sup>14)</sup> 결국 엘리트 지위를 획득하는데 출신대학이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한 인식이 일반 대중 사이에 자리잡게 되면 단순히 대학진학만이 아닌 일류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 역시 가속화된다.

교육자격 획득에 대한 경쟁은 특정 직업이나 직무에 진출하고자 하는 희망자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경쟁은 직업집단간에도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직업집단간의 경쟁을 계층이동(stratum mobility)이라고 부르는데,<sup>15)</sup> 이는 직업집단간의 지위 위계상에서 어떤

직업집단이 다른 직업집단보다 우위를 점유하려는 현상으로, 많은 경우 교육자격을 높임으로써 자신들이 속한 직업집단의 지위를 높이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대다수 직업에서 이 계층이동 현상으로 말미암아 교육자격이 높아지게 되고 고학력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교육자격이 예비적 직업자격으로 작용하는 경우, 학교의 선발과 분배 기능은 강화될 수밖에 없고, 학교는 서열화되면서 더 이상 협동의 장이 아닌 경쟁의 장으로 바뀌게 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얼마나 배웠는가 하는 교육의 질적인 측면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사회에서 요구하는 또는 타인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는 데 필요한 교육자격을 갖추었는가만이 관심의 대상일 뿐이다.

### 3) 사회이동 통로로서의 학교교육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학교교육이 사회이동 통로로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은 해방 후부터라고 생각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신분구조의 변화와 관련지어져 있다.

우리나라 신분구조의 변화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삼국시대에는 카스트 제도—특히 신라의 골품제도— 그리고 고려 및 조선시대에는 법에 의해 구분되었던 신분제도, 구한말 갑오개혁 이후에는 근대적 계급구조가 중심이 되었고,<sup>16)</sup> 8·15와 6·25를 통해 신분제도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sup>17)</sup> 따라서 조선시대 이전의 봉건주의 사회는 귀족사회로, 교육의 사회이동 효과는 신분제도에 바탕을 둔 이동효과이다. 또한 일제 식민지 시대의 경우, 엘리트 지위로의 이동 기회는 식민지 지배 세력과 극소수 친일 세력에게만 개방되었고, 식민지

13) 강양원, 『전계서』, p. 14.

14) 『상계서』, pp. 43~48.

15) 이 계층이동의 개념에 관해서는 강희돈, “사회 이동 연구의 동향과 이론 유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교육문제연구』, 제1집, 1988, p. 147을 참조할 것.

16) 석태중, “교육기회와 사회계층과의 관계에 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p. 18.

17) 김영모, 『한국의 사회계층 연구』(서울: 일조각, 1982), p. 74.

통치를 위한 복선형 학제가 유지되었기에 학교교육의 사회이동 효과를 논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사회이동, 즉 능력주의나 업적주의 성공규범에 따라 사회이동이 일어나고, 학교교육이 사회적 상향이동의 통로로서 작용한 것은 개화기의 과도기를 거쳐 식민지시대를 마감한 8·15와 6·25를 통해 신분제도가 사라지고 난 후 자유민주주의 정치 이념과 제도가 수용되고, 급속한 산업화와 공업화·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교육 기회가 급속하게 확대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변동은 또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는 동시에 또한 높은 수준의 사회이동률을 유지시키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60년대 이후 출몰 선진국과 비슷한

높은 사회이동률을 보이고 있다.<sup>18)</sup> 이와 같은 높은 사회이동률은 사회구조적 변동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과 더불어 학교교육이 매우 크게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사회이동 연구물의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교육의 사회이동 효과는 매우 큰 동시에 다양한 여러 지위의 획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9)</sup>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각 개인의 직업지위 획득에서 학교교육의 영향력은 다른 변인들보다 일반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0)</sup> 이러한 직업지위 획득에 미치는 학교교육의 영향력은 전·현직 경력에 의해 중개되지 않는 직접적 효과이다. 더욱 이러한 학교교육의 효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변인들(문화적 소유물과 아버지 직업지위)의 효과를 중개하여

중으로써 아버지와 자식 간의 지위세습 정도를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sup>21)</sup> 이와 같은 학교교육의 효과는 계급이나 직위 및 소득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학교교육은 자신의 계급이나 직위 및 소득 획득에 꾸준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변인들의 자식의 지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을 중개해 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학교교육은 몇 가지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학교교육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변인들 중 부모의 교육 수준이나 문화적 소유물, 부의 직업지위들과 관련지어졌을 때는 부모와 자식 간에 지위가 세습되지 못하도록 하는 중개적 기능을 비교적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부모의 계급이나 직위와 관련

18) 김영모, 『상계서』, p. 361; 안치민, “사회이동 분석을 통해서 본 한국사회의 사회 불평등 체계의 특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19) 강희돈, “한국의 사회이동과 학교교육의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pp. 104~123; 박원구, “산업별 임금 격차의 구조와 변화”, 박원구·박세일, 『한국의 임금 구조』(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84), p. 237; Koo and Hong, “Class and Income Inequality in Kore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5, 1980, p. 621.

20) 강희돈, 『상계서』, p. 105.

21) 강희돈, “사회이동 과정과 학교교육 역할의 다양성”,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교육문제연구』, 제 6집, 1994, p. 100.

되었을 때에는 세대간 세습을 완화시켜 주는 중개적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sup>22)</sup> 이러한 점은 일반적으로 다른 외국의 경우와 비슷하다.<sup>23)</sup>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교육은 비록 부모의 계급이 자식에게 세습되는 것을 완화시켜 주지는 못하나, 본인의 계급 획득에는 비교적 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외국의 경우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sup>24)</sup> 이러한 점은 학교교육이 사회계급 획득에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외국의 경우<sup>25)</sup>와는 크게 다른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교육의 제지위 획득 효과는 매우 크고, 다양한 지위를 획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우리의 학교교육은 4년제 대졸 이상과 전문대졸 이하 졸업자로 구별하여 양 집단간에 소득격차를 유발시키는 자격증 효과

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6)</sup>

이상의 논의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교육이 순기능적인 역할과 역기능적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방향에 관계없이 학교교육 사회이동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이동 과정에서 학교교육의 효과가 크게 존재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학교교육을 선호하게 하는데, 특히 다른 수준의 교육보다 사회이동 효과가 크고, 엘리트 지위로 옮겨갈 수 있는 대학교육을 보다 선호하게 만든다. 더욱 학교교육의 제지위 획득에 대한 독립적 효과가 크다는 사실은 부모의 지위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 교육을 많이 받음으로써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 준다. 또한 학교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고 부분적으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를 중개해 줌

으로써 비교적 평등하고 객관적인 도구로 인식되어 제지위를 획득하는 데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라는 믿음을 갖게 한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적 유산에 의해 형성된 믿음, 즉 교육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최소한 대학교육은 받아야 사회에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신념과 함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대학으로 물리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4) 노동시장의 분절

학교교육이 어느 정도 수준의 교육자격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증표로서만 기능하는 자격증 효과를 갖는 것은 주로 사회구조나 노동시장 구조가 어떤 라인을 따라 나뉘어져 있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사회구조나 노동시장 구조가 서로 상호 이동이 불가능한 라인을 따라 나뉘어져 있는 경우에는 학교교육의 고유한 사

22) 강희돈, 『전계서』, 1988, pp. 105~112.

23) Robinson, "Reproducing Class Relations in Industrial Capitalis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 pp. 727~739.

24) 강희돈, "세대간 사회계급 이동과 학교교육의 효과", 『교육문제연구』, 제2집, 1989, pp. 58~61.

25) Robinson, *op. cit.*, pp. 727~739.

26) 강희돈, "학교교육의 자격증 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논총』, 24집, 1994. 12.

회이동 효과가 왜곡되어 나타난다. 즉, 학교교육의 사회이동 효과는 나뉘어져 있는 사회구조나 노동시장 구조에 영향을 받아 나뉘어진 서로 다른 구조간에 학교교육의 회수율이 달라지게 된다. 이때 나뉘어진 학교교육의 사회이동 효과는 분단된 노동시장이나 사회구조의 중개적 효과이므로 학교교육은 능력의 지표로 간주되지 않고, 어느 수준의 교육자격을 획득하였는가의 여부만을 가리는 자격증 효과만을 갖게 된다.

우리의 경우 산업별,<sup>27)</sup> 직종별<sup>28)</sup> 및 성별<sup>29)</sup>로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 중 고학력화 현상과 관련하여 흥미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교육 수준별과 성별에 따라 단층화되어 있다고 보는 노동시장 분절론이다.<sup>30)</sup> 즉,

이 이론에 따르면 제4단층에는 대졸 남자가, 제3단층에는 대졸 여자, 전문대졸자 및 고졸 남자, 제2단층에는 중졸 이하의 남자와 고졸 여자가 속한다.<sup>31)</sup> 일단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특정 단층 구조에 귀속하게 되면, 나뉜 단층 구조에 따라 보수와 승진이 완전히 다른 생애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리의 경우에는 외국과 달리 학교교육 수준이 성별과 상호작용하여 노동시장을 분단하여 단층구조를 형성하였으므로, 단층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효과는 학교교육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단 현상은 노동시장이나 사회구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다. 정우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sup>32)</sup>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경우 계열별 효과가 뚜렷이 존재한

다. 즉, 실업계 학생들보다 인문계 학생들이 교육을 통한 직업적 상향이동에 더욱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직업포부 역시 양 계열간에 매우 큰 차이를 보여 인문계 학생들이 훨씬 큰 직업포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경우 사회적 경제적 변인들의 영향력은 중개변인에 의해 대부분 중개되고, 객관적 지표로 간주될 수 있는 지능이나 성적의 영향이 큰 데 비해, 여학생의 경우 이러한 효과가 남학생보다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33)</sup> 이와 같은 결과들은 고등학교에서의 계열별 구분이 단선형보다는 잠정적 복선형 체제와 비슷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볼 때, 고등학교의 계열별 효과는 학교 수준별과 성별로 분

27) 이태욱, "업종 및 직종별 임금격차 요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한국사회개발연구』, 3, 1980, pp. 82~83; 박원구, 『전계서』 p. 237.

28)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 보고서』, 1985.

29) 박원구, 『전계서』, p. 237.

30) 이효수, 『전계서』.

31) 『상계서』, pp. 260~263.

32) 정우현, "고교생의 교육기대 및 직업포부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교육문제연구』, 창간호, 1988, pp. 66~67.

33) 강희돈,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학교교육과 정화 모형 탐색",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교육문제연구』, 제5집, 1993, p. 217.



단된 단층 노동시장이나 사회 계층별 효과와 비슷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의 학교 교육 문제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게 된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계보다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진학 희망률과 실제 진학률이 높기 때문에,<sup>34)</sup> 노동시장에서의 단층화 현상은 이미 학생들이 계열별로 나뉘면서 어느 정도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대학의 졸업 여부가 상위 단층 노동시장의 귀속에 중요한 조건이므로, 미래에 자신이 속하게 될 노동시장에서의 단층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가 좋은 보수와 승진의 혜택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만 이용되어, 우리 사회에서 학교교육이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도록 저해하게 된다. 또한 상급학교로의 진학이 상위

단층 노동시장으로의 귀속을 보장해 줌으로써 맹목적 고학력화 현상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어 학교교육 본래의 목적을 왜곡시키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학교교육은 긍정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 같지 않다. 교육 수준에 따른 효과는 능력의 지표이기보다는 자격증, 즉 선별 효과만을 갖게 되어 우리 사회에서 고학력화 현상을 더욱 부추기게 한다.

#### 5) 중간층의 증대

계속적인 경제발전으로 국민의 생활이 점차 안정되고, 산업구조나 직업구조가 변화하면서 단순한 육체노동이 아닌 정신노동을 요구하는 직무가 창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계층 역시 최상층과 최하층이라는 양극화 현상이 아닌 이 양 계층 사이에 놓여 있는 중간층<sup>35)</sup>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중간층의 증가는 사회계층적 차원뿐 아

닌 사회계층의 측면에서 분석하여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서관모의 한국 사회계층 구성을 살펴보면<sup>36)</sup>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사이에 놓여 있는 신중간계층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신중간계층은 인텔리층과 임금취득 중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텔리층은 생계기반이 노동력의 특별한 자질이며,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나 노동력의 판매 여부는 이차적인 의미만 갖는다. 임금취득 중간층 역시 국가기구 내에서 관리·감독 및 억압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개별 자본영역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및 가치증식 과정의 조직 및 감독, 자본의 형태 변환 및 잉여가치 실현의 달성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집단이다.<sup>37)</sup> 따라서 이 층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했으나 타인의 노동력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양대 기본계층과는 다르다. 따라서

34) 정우현, "교육기회 평등화의 현실과 전망",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한국의 사회복지: 현재와 미래』, 1987, p. 114.

35) 여기서 중간층의 개념은 사회계층의 개념상 상층과 하층 사이에 놓여 있는 집단을 단순히 지칭하는 용어이다.

36) 서관모, "한국사회의 계급구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pp. 63~67.

37) 『상계서』, pp. 23~24.

이 신중간계계층은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사이에 놓여 있는 집단으로 그 속성상 사회구조 내에서 중간층에 해당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 신중간계계층은 5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서관모는 한국의 경우 뽀띠부르주아지는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형성·성장해 온 층으로 현실적으로 새로운 중간계층으로 규정하고 있다.<sup>38)</sup>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 뽀띠부르주아지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회계층 차원이건 사회계급 차원이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성장하는 중간층은 늘 새로운 교육적 요구를 주장한다. 즉, 이들의 특성은 자본가 계급과 같이 많은 자본을 소유하지도 못하고 또한 노동자 계급과 같이 오직 노동력을 판매함으로써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집단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은 육체 노동직보다는 상당한 교육수준을 요구하는 정신 노동직에 종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이 계층 사람들의 사회적 성공은 많은 교육을 받음으로써 가능해진 경우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절대적 명제로 등장하게 되고, 입시 준비기관으로서 공교육 학교에 관심이 급증하게 된다.<sup>39)</sup>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교육열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간층이 확대되면서, 이 계층 사람들은 자신들의 교육적 요구가 관철되도록 주도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들은 각종 공공 교육정책 수립이나 시행 및 학교현장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결국 자본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에게 커다란 재산을 물려줄 수도 없고 또한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성공을 경험한 중간계층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자식의 교육 문제에 관여하게 되고, 자신들의 교육적 요구를 관철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 3. 앞으로의 전망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고학력화 현상의 원인을 봉건주의 시대 이후 일제기까지 형성된 교육요구, 그리고 교육자격의 예비 직업자격 기능, 사회이동 통로로서 학교교육 및 노동시장 분절 그리고 중간층의 증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성공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었고, 해방후 교육기회의 확대와 동시에 교육이 사회이동 통로로 작용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기회가 어느 정도 확대되었으나 학교의 서열화 과정으로 극단적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교육수준에 따른 노동시장의 분단은 학교교육의 성공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중간층의 확대는 자신들의 자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이루어지도록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학교

38) 『상계서』, p. 66.

39) J. F. Thompson, *Foundations of Vocational Education*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1980.

교육에 모든 운명을 걸게 하고 우리 사회에서 고학력을 선호하게 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우리의 고학력 선호병의 전망은 어떠한가? 일단 우리의 고학력 선호경향이 쉽사리 가라앉을 전망은 없는 것 같다. 봉건주의 시대 이후 근대에 이르는 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요구와 교육에 의한 출세지향주의는 우리의 문화 속에 내재화되어 깊이 박혀 있는 가치지향이다. 늘 교육을 통한 출세지향적 규범에 노출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규범에 순응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 규범을 자신의 부분으로 만들어버리고 사회적으로 세뇌되어 있는 현재에 이르러 하루 아침에 그 규범과 가치를 버리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또한 교육자격이 예비 직업 자격으로 기능하고 더욱 나은 지위로 옮겨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고학력에 대한 열망을 모두 포기할 것 같지 않다. 이미 고학력에 대한 열망이 우리의 의식 속에 내재화되어 있고, 고학력자에 대한 보상이 현실적으로 크다면, 어느 누구도 고학력에 대한 열망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에 의한 출세지향적 가치를 내재화하고, 현실적으로 고학력자가 우대받는 모습을 보았을 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교육정책이 수행되도록 행동할 수 있는 주도적 역할을 할 계층이 존재할 때 우리의 학교현장은 파행을 면할 수 없다.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상호작용은 우리의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한다. 학교의 측면에서 대학교육의 기회를 계속 확대한다 해도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학력추구현상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현재와 같이 대학이 철저히 서열화 되어 있어 출신대학이라는 학연에 따라 사회에서의 성공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면, 대학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해서 학력경쟁이 사라진다는 보장은 없다. 사회성원들이 사회구조 위계상 상위에 위치한 지위의 수가 상대적으로 배출되는 졸업자 수보다 적고, 그것이 소수의 특정 대학 출신자들로 충원되는 상황에서는 대학진학뿐 아닌 일류대학 진학이라는 2중의 학력경쟁이 유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고용관행도 학교교육의 위계질서와 맞물려

있다. 즉, 학교교육의 수준별에 따라 그리고 대학의 서열화에 따라 고용관행이 다르다.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사회에서 유리하게 통용되는 자격증을 획득하였는가에 따라 고용규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고용시 중요한 것은 교육의 질적인 측면이 아닌 학력과 간판으로 고학력을 더욱 부추기게 된다. 물론 각 기업에서는 모든 취업 희망자들의 능력을 완전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취업희망자의 능력 선발은 불가피하게 학교교육의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고용과정은 단순히 학력과 간판이라는 외형적 기준에만 의존하고,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고용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고학력화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

이와 같이 학교교육의 분배 효과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관행은 서로 맞물려 있어 학력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게다가 우리의 의식 속에 내

면화된 고학력에 대한 선호병은 고학력 열망을 더욱 부추기게 된다.

물론 최근에는 학교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공부하는 소수의 학생들을 위한 들러리 서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일선 교사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이나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만족할 만한 증거는 아직 없는 것 같다.

이상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 사회에서 고학력에 대한 열망이 쉽게 포기될 것 같지 않으며, 새로운 측면에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 같다.

#### 4. 맺는 말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고학력에 대한 열망이 쉽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우리 사회의 경우, 우리의 가치관에서부터 사회제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들이 고학력에 대한 열망을 부추기는 것 같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고학력화 현상에 대한 문제는 제도적 측면과 개

인의 의식구조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해결될 것 같다. 먼저 학교교육이 정상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사회에서의 지위획득 과정이 단순한 자격증이 아닌 개인의 능력에 바탕을 둔 제도적 개혁이 요구된다. 막연한 제도적 개편은 80년 초반 정부주도의 획일적 입시제도의 시행 결과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오히려 대학간 서열화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개개인의 개성과 특성이 존중되어 자기의 만족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 개혁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적 개혁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 않다. 입시제도의 경우, 해방후 이제까지 11차례 정도의 크고 작은 개혁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으나 이에 관한 만족할 만한 해결을 보았다는 증거는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올바른 방향의 제도 개혁과 더불어 우리의 가치와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의식개혁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러한 의식개혁을 위한 전제는 우리의 교육에 대한 개념이다. 이제껏 살펴보았듯이

우리 사회가 지칭하는 교육이란 출세를 위한 도구라는 개념에 불과하다. 그러나 교육은 인간의 궁극적 목적 추구에 깊이 관여하며 그 자체로서 목적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교육에 대한 시각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물론 교육개념의 새로운 전환에 터한 의식개혁의 방향은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방향의 하나로 '나의 자식'이 아닌 '우리들의 자식'이라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나의 자식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우리들의 자식을 위한 교육'이라는 의식이 불필요한 교육 경쟁을 불식시키고 교육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라 생각한다. ■

---

강희돈 / 고려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동 대학 교육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고려대와 한국외국어대 강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대교협 정책연구부 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공저로 『한국사회와 교육갈등』, 『교육사회학 연구』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한국의 사회이동과 학교교육의 효과", "학교교육의 자격증 효과", "사회이동 과정과 학교교육 역할의 다양성" 외 다수를 발표했다.